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AIG,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 지속

□ AIG가 핵심 사업부문으로 꼽히는 자회사 알리코(Alico)의 매각 협상을 미국 보험사 메트라이프(Metlife)와 재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(FT)가 보도함.

- 알리코는 미국을 제외한 50개국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, 지난 5월 메트라이프, 악사(AXA), 영국 푸르덴셜(Prudential), 중국투자공사(CIC) 등과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바 있음.
- 지난 협상에서 AIG는 200만 달러의 가격을 제시한 반면 메트라이프는 110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번 매각협상가는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됨.
- 미 정부는 AIG에 대해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AIG 지분 80% 가량을 인수했으며 AIG는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자회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.

□ AIG는 최근 미국 내 개인자동차보험 부문의 매각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자산운용부문 및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.

- 지난 7월 1일 AIG는 미국 내 개인자동차보험 자회사인 21세기 보험사(21st Century Insurance)를 파머스 그룹(Farmers Group)에 최종적으로 매각하였으며 매각 단가는 19억 달러임.
- 그러나 미국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(Franklin Templeton)을 주축으로 한 협상단과 진행 중이었던 자산운용부문 AIG인베스트먼트(AIG Investment)의 매각은 최종협상 시한을 넘겨 협상이 무산됨.
- AIG는 해외자회사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 멕시코의 소비자 금융 부문, 러시아의 은행 자회사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 졌으며, 대만에서의 보험 자회사 매각도 추진 중에 있음.

(Financial Times, 7/8 외)